



부산항은 영도다리를 경계로 남항과 북항으로 나뉜다. 이 지역에는 수산물 관련 업종과 선박 수리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부산 수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평소 바다와 관련된 직업군을 체험할 일이 드문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6.25 피난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생선을 잡아 팔던 자갈치시장과 건어물시장, 조선 산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던 조선소를 통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옛 부산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배울수 있는 역사의 장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제 1의 항만도시인 부산! 그 명성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코스를 추천한다.



집결지

부산종합관광안내소
(중구 구덕로31)
☎ 051)253~8253



오승길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2번
출구 나와 정면 10m 또는 지하쇼핑
센터 14번 출구 나와 왼편 위치



부산은 지리적 특성상 일본과 가까이 있어 교류가 잦은 곳이었다. 과거 조선과 일본은 조선통신사를 통해 문물을 주고받았고, 생활필수품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조선을 방문한 일본 사신이 머물던 숙소이자, 일본인의 입국 및 교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외교 기관이었던 왜관은 이러한 양국 교류의 흔적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부산 시내 곳곳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일부 남아있다. 영두산공원 일대를 둘러보며 일본인들이 거주 이후 변화된 지형의 모습을 확인해보자. 부산의 근현대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집결지
롯데백화점 광복점 13층
국기계양대
(중구 중앙대로2)

오는길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8번
출구로 나와 롯데백화점 광복점
13층 전당대로 이동



이바구길에는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종합병원 '백제병원', 부산 최초의 창고 '남선창고'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장소가 유독 많다. 너른 바다처럼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향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며 생겨난 피난민들은 산복도로에 판잣집을 짓고, 향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다. 아찔한 168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했던 고단한 인생. 이바구길은 그 소금이 가득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한 길이다. 현재는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써의 노력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집결지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앞
 (동구 대영로 243번길 38)
 ☎ 051)441~3121

오승길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1번 출구에서
 상해거리 진입 후 중앙상징물(때루)
 에서 우회전 후 오른쪽 두 번째 건물



시장은 적은 돈으로도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어 옛부터 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곳이며 문화 교류의 현장이기도 하다. 국제시장은 무역을 통해 들어온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였으며, 부평광통시장은 한국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현재는 야시장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접할 수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보수동 책방골목에 들러보고, 영화 매니아라면 남포동의 많은 극장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기념하는 기념광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국제시장>의 무대를 직접 눈에 담아보고, 씨앗호떡과 어묵 등 부산 특유의 먹거리를 마음껏 즐기자.



집결지
 부산종합관광안내소
 (중구 구덕로 31)
 ☎ 051)253~8253

오승길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2번 출구로 나와
 정면으로 10m 직진



흰여울문화마을은 태평양을 품고 있는 영도의 절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풍경이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해안마을 산토리니를 연상시킨다. 가파른 절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을 거닐다보면 마음이 절로 포근해진다. 경치는 충분히 즐기되 발소리와 말소리는 줄이도록 하자. 우리가 지나는 곳이 주민들의 앞마당이고, 정원이기 때문이다. 바다 주차장인 묘박지에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 해주는 수상 선용품점들이 있고, 아래쪽 남향에는 배를 수리하고 도색하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집결지
 흰여울문화마을 운영지원센터
 (영도구 해안산책길 52)

오스길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6번
 출구에서 9,7,85번 버스 탑승후
 부산보건고등학교 하차



부산은 6.25전쟁 중 임시수도였다.

하지만 이를 피부에 와 닿게 체험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

머리만 배우고 가슴으로 느낄 수 없었던 6.25전쟁!

피란수도 부산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다.

6.25 이후 피란민들이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비석문화마을'에서 부산을 내려다보고, '최민식 갤러리'에서 그때 우리네 모습들을 살펴보고, 임시수도기념관, 석당 박물관까지 둘러보는 코스이다.

※ 기찻집 예술 체험 시 사전 예약 필수(유료) ☎ 051) 246-8899

체험교실 : 쿠키만들기, 천연비누 제작 등



집결지

산상교회 - 비석문화마을을 입구
(서구 아미로43)



오는길

부산대학교병원 또는
서구청에서 '사하1-1, 서구2'
마을버스타승 후 산상교회하차



음식점들로 가득한 변화가 수영!
알고보면, 우리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명소들이 숨어있는 동네이기도 하다. 우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유구한 전통의 수영팔도시장에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어서 수영 사적공원에서는 조선시대 옛 좌수성 남문 터를 감상할 뿐 아니라, 어부이자 민간 외교가던 독도지킴이 안용복의 사당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고려제강기념관과 복합문화공간 F1963에서 부산 근현대산업 발전사를 체험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시간여행이 가능한 곳이 바로 '수영'이다.



집결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 1번출구 앞



오느길

- 1) 수영사적공원 내 매주 토요일
- 2) 수영팔도아시장
(월~토, 19:00~23시, 일요일 휴무)



BOF

BUSAN
ONE ASIA
FESTIVAL
2018

2018.10.20~10.28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www.bof.or.kr



내 손안의 부산



부산관광공사 애플랫폼
bto.or.kr



부산시티패스



빌리쉬어



식신



요트북



유이수



짐캐리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6가지 앱을 다운 받으시고,
웹에서 앱을 검색해 보세요!